

사랑하는 통일운동의 동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워드 셸프입니다. 저는 25 세이던 1975 년에 미국에서 통일운동에 입교하였습니다. 1978 년에 저는 미국의 통일신학대학원(UTS)를 졸업하였으며, 이 운동 안에서 반세기 가까운 지도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공직은 승공연합, 대학원리연구회,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미국지도자연합, 천주평화연합, GPF, 가정평화협회 등 대부분의 통일운동 단체를 망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 운동에 속해 있지 않은 비영리단체인 Right To Believe(RTB, 믿음을 위한 권리)의 회장으로써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운동의 지도자 경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식구들이 잘 모르고 있는 통일운동의 분열상의 많은 내용들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에 의해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개서신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하워드 셸프 (Howard C. Self)

워싱턴 디시(D.C) 법정이 오판한
통일운동 분열에 관한 진실

생전에 논란의 중심에 서 계셨던 문선명 총재님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 평화와 통일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적 운동을 세계적으로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켜 인류 앞에 심도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문 총재님의 비전과 가르침은 세계적으로 인류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는 수 백 개 단체들의 활동에 동기를 부여했다. 이러한 단체들은 통합하여 통일운동으로 일컬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문 총재님은 종교지도자로 알려졌으나, 총재님은 자신의 사명을 교회나 종교의 활동에 한정해서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다.¹² 한 예로, 문 총재님은 1970 년대에 무신론의 공산주의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하며 마르크스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데 앞장 섰다. 총재님의 눈부신 활동과 성과는 세계 정상 지도자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캐스퍼 와인버거는 워싱턴 디시(D.C)에서 개최된 공개 행사에서 “냉전을 승리로 이끈”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분은 바로 문선명 총재라고 확고하게 표명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자, 총재님은 곧바로 상당 수의 국제평화기구들을 출범시켰다. 세계 평화 실현이 총재님의 원대한 생애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통일운동이 이룩한 뛰어난 업적 가운데 한 예에 불과하다.

문 총재님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숭고한 이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20 세기의 마지막 10 년 동안, 그 빛나는 업적들이 드러나는 매 순간은 희망의 새 천 년에 대한 위대한 약속으로 가득 찼다.

불행히도 문 총재님의 성화(聖和) 8 주년을 맞는 오늘날, 통일운동의 분열로 그 위대한 약속은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총재님의 유업과 정신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계승하기 위한 필요성이 절실했다. 본 글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운동의 분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그동안 발생한 사건의 핵심 전말과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분열로 인해 발생한 각종 소송들로 더욱 중요해졌다. 안타깝지만,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디시(D.C)의 법정에서 이러한 기록들이 간과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앙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 총재님은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되던 1945 년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였으며, 출발부터 엄청난 고난과 마주쳤다. 갖은 고문과 옥고를 치르며 죽을 고비를 넘긴 총재님은 한국 동란의 폐허 속에서 한국의 가장 남단에 위치한 부산의 한 판잣집에서 활동을 재개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자리를 옮긴 총재님은 1954 년에 통일운동 최초의 단체를 설립했다. 총재님은 이 단체의 명칭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협회)"라고 정했는데, 여기에는 "교회"나 교단이 아니라 통일을 추구하는 영적인 협회라는 총재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

이 협회가 중심기구 역할을 했던 초창기부터 총재님은 당신의 궁극적인 사명이 종교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들을 찾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밝혔다. 이 협회는 앞으로 전개될 활동과 목회의 기반을 닦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하셨다. 이러한 뜻에 따라 통일운동의 조직이 갖추어지고 활동이 확산되어나갔지만, 언론과 이 운동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통일교회"라는 딱지를 붙여 폄훼하고자 했다.

수 세기에 걸쳐 교계제도를 갖춘 가톨릭 교회나 다른 종교와는 달리, 통일운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메시아적 지도자가 이끄는 역동적인 섭리운동이다. 문 총재님의 독특한 가르침에 따르면, 가정은 인류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하나님의 창조목적 완성의 핵심이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 가정에서부터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하나님 중심한 가정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구원역사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완성은 아담의 책임분담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문 총재님은 통일운동 내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구성원들에게는 운동의 방향과 정책, 신학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전적인 영적 권위를 가진 아담형 인물로 인식되었다. 게다가 초창기부터 통일운동의 식구들은 문 총재님과 그 가정에 장자권의 전통을 통해 전수되는 섭리의 중심역할과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이해했다.

문 총재님은 아담형 가정은 삼대에 걸쳐 참가정의 기준과 질서를 성공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참가정 이상의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부모는 그 권위를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데 서로 협조해야 한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들의 책임이 커질수록 아버지와 아들의 협조 또한 중요하다. 어머니는 가족 구성원들을 격려하여 전통에 따르도록 핵심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각 가정의 구성원들은 그 가정 내에 합당한 기준과 질서와 화합을 실현하는 데 각자의 책임분담을 갖고 있다. 이것은 어느 가정에 있어서나 그 가정의 정체성과 전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문 총재님의 가정에서도, 섭리적인 기대(期待)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하나 되어 이러한 과정을 절대적으로 거쳐야만 한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운동의 지각변동

1994 년, 문 총재님은 섭리운동이 어떤 성격으로 진화될 것인지를 시사하면서 일련의 극적인 변화들을 단행했다. 협회창립 40 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총재님은 “종교시대의 종말”과 가정을 중심한 새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다. 협회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구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을 발족시켰다.^{3 4}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교회체제의 구조에서 개인과 가정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분권적인 풀뿌리 연합으로 나아가는, 통일운동에 있어서의 지각변동이었다. 또한 단체 하나가 교체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섭리의 대전환점이었음을 말해준다. 초창기의 반대를 극복하고 필요한 기반을 닦는데 40 년을 지내고 난 후에야, 총재님은 비로소 하나님 아래 통일된 인류 한 가족 건설을 위한 본연의 메시아 사명을 수행할 섭리기구를 출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세계 평화와 통일을 이루겠다고 다짐한 하나님 중심의 가정들로 구성된 연합체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문 총재님은 차세대 지도자들로 대대적인 교체를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98년 총재님이 78세 되던 해, 아들인 문현진 회장을 아담형 인물의 권위를 갖고 통일운동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지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발표는 문 회장이 가정연합 세계부회장에 취임하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섭리가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문 총재님께서 문 회장을 후계자로 공인하고, 당신의 모든 영적 권위를 그에게 상속했다는 사실은 섭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총재님은 이 취임식의 말씀에서 이것은 섭리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총재님은 문 회장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인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총재님과 통일운동이 고심해 왔던 후계 문제는 이 날 정리되었다.⁵

“메시아” 개념은 종단 간에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통일신학ⁱ의 메시아 관은 유대교와 같은 아브라함 신앙 전통과 유사하다. 메시아의 고유한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사명을 완수하는 분으로 메시아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를 온전하신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하며, 복잡한 신학적 개념으로 인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통일신학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이상가정의 선례를 세울 책임과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섭리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하나님 중심의 인간이다. 메시아의 사명은 성서의 아담과 그 가정이 실패했던 것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아담의 사명을 완성하는 인물인 것이다.

문 총재님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메시아적 역할을 이해했다. 어린 시절에 총재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총재님은 예수님을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 아담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후 아담(두 번째

ⁱ 통일운동의 신학(번역자 주)

아담)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인계 받았기 때문에, 총재님은 3 차 아담으로서 당신의 사명을 이해했다. 나아가, 총재님께서 이 사명을 완성할 후계자로 당신의 아들인 문현진 회장을 공인했을 때, 문 회장을 4 차 아담이 될 분으로 선포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신학을 공부했고, 올림픽 선수로 활약했으며, 성공적인 기업가로서 경력을 갖추고 있었던 문 회장은 당시 29 세였다. 문 회장의 첫 직책은 가정연합 “부회장”이었지만, 아담형 인물로서 가지는 영적인 권위는 통일운동 내에서 원로 기관장들을 포함해 어느 누구보다도 위에 있었다.

1998 년 문 회장의 취임을 전후로, 문 총재님께서는 통일운동의 주요 지도자를 원로들에서 당신이 세운 후계자에 맞춘 젊은 세대로 대거 교체해나갔다. 그리고 2001 년에 40 세 이하 모든 지도자는 문 회장의 지도를 받도록 발표하셨고⁶, 이후 그 범주를 48 세 이하까지 확대하셨는데⁷, 문 회장에 대한 총재님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시기에 상당수 지도자들은 이미 이 나이 대의 그룹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문 총재님은 “부자협조 시대”를 여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문 회장과 하나되고, 섭리 전반에 관한 일들을 문 회장에게도 보고하고 상의할 것을 명확히 했다.⁸

문 총재님은 문 회장의 감독하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시대에서 가정연합 시대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것은 단순히 단체의 변경이 아니라 섭리적인 전환으로서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문 회장은 통일운동의 문화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도자와 식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주도했다. 또한 총재님의 당부 하에, 대대적인 개혁을 신속하게 단행하고, 조직적인 체질을 개선하였으며, 식구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급속한 발전의 시대를 열었다.

가정연합으로의 변화가 진행되던 때에, 문 총재님께서는 1999 년 초종교 초국가연합 창설을 시작으로 중요한 평화활동기구들을 출범시켰다. 2004 년 협회창립 50 주년을 맞은 총재님은 당신이 이끌어왔던 섭리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통일운동이 공식적으로 출발한 지도 어느덧 50 년이 흘렀습니다. 통일운동의 첫 단계는 개인적인 구원을 다루는 종교적인 양상이 주를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천국의 기본 단위인 참가정을 찾아 세우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종족을 복귀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지상과 영계의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운동은 평화이상세계건설을 위한 것이며, 이미 진지하게 시작되었습니다.”⁹

문 총재님은 이 섭리적인 전환점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 수고해오셨고, 이 시기의 극적인 진전들은 문 회장과 부자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서 문 회장은 가정연합에 더해 주력 평화조직으로서 2005 년에 창설된 전주평화연합(UPF)을 비롯하여 통일운동 산하의 대부분의 주요 섭리기관들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문 회장은 총재님의 위임을 받아 가정연합의 자원을 보호했고, UPF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였으며, UPF 소속의 평화대사들을 세계적인 평화조직으로 확대시켰다. 그는 이 세계적인 조직에 감동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여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혁신적인 비전에 주인의식을 갖도록 했다.¹⁰ 문 회장은 2008 년 한 해만 하더라도 거의 30 개 국가에서 개최된 대규모 평화축제에서 이 감명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것은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성과였다.¹¹

문현진 회장은 아담형 인물로서의 권위를 갖고 1998 년부터 2008 년까지 10 여년간 문 총재님께서 설립하신 섭리단체들을 이끌며 그들이 섭리적인 목적을 깨닫도록 지도하였다. 이 시기에 문 회장은 가정연합을 가정중심의 운동으로 변화시키고, 전주평화연합을 중심하고 세계적인 평화활동을 주도했다. 그 결과 통일운동은 전례 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으며, 2008 년 말, 전 세계 통일가의 식구들은 통일운동의 놀라운 발전상을 확인하며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 회장과 그가 수 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들을 폄훼하고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대다수의 식구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문 총재님의 후계자에 반대하는 저항이 커지다

예상했던 바이지만,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교체되는 과정의 대대적인 변화들은 기존의 교권세력들에게 자신들의 기반을 해체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자신들의 권위와 특권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 교회지도자들은 개혁을 가로막고 운동을 분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그들은 식구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문 총재님의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에 식구들은 자신들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전통을 내세웠다. 이러한 비원리적인 리더십은 각 개인과 축복가정이 책임분담을 완수하고 내재된 가치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기여한다는 가정연합 시대의 취지와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문 총재님께서 이미 공인한 문 회장의 권위와 관련하여 이 지도자들은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첫째, 후계자의 문제였는데, 하늘과 문 총재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미 1998 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통제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둘째, 문 회장은 총재님의 뜻을 충실하게 받들어 전 세계 통일운동의 개혁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었다. 셋째, 전 세계의 식구들은 문 회장이 보여준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희망과 비전에 호응하며 그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2008 년까지 문 회장이 이룩했던 전례 없는 성과는 이 지도자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원리에 입각한 개인 책임분담의 완수와 인류 한 가족 실현을 강조하며 통일운동의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그 결과, 전 세계 통일운동, 특히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이 성장의 에너지를 경험하며 희망과 자긍심을 느꼈다.

슬프게도, 교회지도자들은 문 회장이 이끌고 있는 개혁과 변화를 막을 생각으로 왜곡된 신학까지 이용했다. 40 년 이상 교회지도자들이 구축해 온 “교회 형태”의 체제 때문에, 대부분의 식구들은 교회지도자들을 신봉했고, 그들이 “참부모님의 지시”라고 하면 쉽게 믿고 이용당했다.¹² 교회의 위계질서는 “아벨형 인물들”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문화에 의해 강화되었는데, 여기서 “아벨형 인물들”이란 식구들을

통제하는 바로 그 교회지도자 그룹이다. 이렇게 관료화된 지도체계에 의해 공급되는 "걸러진" 정보에 대한 의존도는 특히 한국어를 몰라 문 총재님의 가르침을 통역을 통해 이해할 수 밖에 없었던 세계 식구들에게서 더 심할 수 밖에 없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서는 지도자들과 식구들에게 문 회장과 하나되고 그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교회지도자들은 "4 차 아담"의 중요성과 총재님의 지시를 식구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대신에, 교만하게도 4 차 아담의 권위가 자신들에게 공동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인 기록이 보여주듯이, 이 지도자들은 문 회장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 갈수록 더 비원리적으로 행동했다.¹³ 게다가 선의의 뜻만 앞세우는 순진한 식구들조차 새 시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지 못한 채 그들의 의도대로 동화됐다.

이들의 총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회장은 통일운동을 섭리적인 목표에 맞게 인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장의 기회는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야망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교권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이 유지되기를 바랐지만, 문 회장의 개혁을 막을 역량은 부족했다. 문 회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들은 2005 년 즈음 사적인 야망을 갖고 기회를 노리는 문 총재님의 몇몇 가족들과 이해관계가 통했다. 그들은 함께 세력을 결집하였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문 회장에 대한 공격을 확대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문 회장을 통일운동의 지도부에서 축출하려는 시도의 배후 주모자가 친형제들인 문형진, 문국진, 문인진의 지지를 등에 업은 친어머니 한학자 여사님이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식구들은 한 여사께서 부군 문 총재님과 하나되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던 것이 분열이 일어나고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 핵심 요소였다.

한 여사는 전 식구들로부터 언제나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으며, 여사님 스스로 문 총재님과 하나되는 것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섭리적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 총재님의 핵심 사명은 참가정 이상을 정착시켜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선례를 세우는 것이다. 참가정은 하늘의 기준과 질서를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책임분담을 완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가정의 전통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전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문 총재님은 “참어머님”의 가장 중요한 책임에 대해 먼저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와 하나되게 이끄는 것이고 다음은 당신이 후계자로 인정하신 4 차 아담과 하나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안타깝게도, 한 여사께서는 그 핵심적인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친 아들인 문 회장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한 여사와 세 자녀들의 동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에 의해 분명해졌다. 한 여사는 거짓된 영매에 미혹되어 자기 자신이 문 총재님보다 앞서고 상위하는 이 시대의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총재님의 승계 계획을 지지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뒤엎기 시작했다. 한 여사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부계 전통과 통일운동의 가르침 하에서, 여사님 본인이 3 차 아담인 문 총재님을 대신하거나 총재님이 이미 인정한 후계자를 정당하게 자기 자신으로 교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먼저 참된 후계자의 적법한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통일가의 식구들 눈에 문 회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만한 “허수아비”가 필요했다. 야망이 가득한 막내 아들 문형진에게서 이 일을 함께 도모할 의지가 있음도 탐지했다. 막내 아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한 한 여사는 그를 형을 대체할 후계자로 내세워놓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통일운동의 다양한 단체들을 장악했다.

문 총재님께서 92 세를 일기로 성화하시자, 한 여사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독생녀”로 선포하고¹⁴ 통일운동의 전반을 직접 지휘했다. 한 여사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보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15 16} 새로운 “독생녀 신학”은 문 총재님의 근본 가르침인 *원리강론* 의 내용이나 성서의 전통에도 전적으로 위배된다. 이 경전들과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는 남성이며 아담형 인물이다. “독생녀”라는 개념은 없다.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원리 그 이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문 총재님은 원리강론을 통해 메시아를 포함하여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신

바 있다. 한 여사의 주장을 보면, 문 총재님께서 성화하시기 직전인 2012 년 한국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회 중 1 만 명이 넘는 대중 앞에서, “문 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설명된다.¹⁷

문형진과 다른 형제들의 동기는 야망과 탐욕에 있었다. 그들의 질투심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에 묘사된 것과 비슷하다. 잘못된 동기는 형님을 문 총재님의 후계자로 인정하거나 형님의 섭리적인 활동을 돕는 것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참가정의 구성원임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섭리적인 책무를 이해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부족했다. 그들은 통일운동의 축적된 자산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몫을 원했다. 그들은 문 총재님의 후계자처럼 행세하는 문형진에 대한 불합리한 주장들을 자신들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지지해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총재님께서 성화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자 비로소 자신들의 계산이 터무니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¹⁸

교권세력들의 저의는 여전히 참가정, 특히 4 차 아담을 무력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권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그들의 견해는 예수의 사후에 교황과 사제 계급이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었던 가톨릭 모델에 근거한다.¹⁹ 물론 그러한 모델은 통일운동을 위한 문 총재님의 의도와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 총재님께서 지속적으로 혈통과 유업(legacy)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이 문 회장을 축출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통일운동 산하의 중요한 단체들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 회장에 대해 법적 또는 여타의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 도당들은 중요한 단체들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쇠해가는 문 총재님의 건강 상태 조차도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아야 했다. 총재님께서 생애 말년에 악화되는 건상 상태로 인해 청평에 소재한 통일운동의 대형 궁전 시설에 말 그대로 격리되어 지내셨다. 그들은 한 여사에 충성하는 직원들과 경비원을 이용하여 문 총재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했다. 그들은 또한 문 총재님께서 매일 갖는 훈독회에 참석하는 인원도 제한했다. 그때까지는 이 훈독회에 일반 식구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다. 이 시간은 언제나 영상

촬영을 해서 전 세계의 식구들이 볼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도 아무런 공지나 설명 없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러나 문 총재님의 훈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식구) 이 훈독회가 갑작스럽게 검열의 대상이 된 뒤통스런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식구들은 문 총재님으로부터 한 여사와 이 교권 지도부에 있는 자들이 당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며 역정내시는 말씀을 자주 들어왔다. 게다가 총재님은 문 회장의 활동을 칭찬하고 이름을 불러 찾곤 하셨다. 총재님께서 역정을 내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횡수가 잦아지자 한국 식구들 사이에서 논란의 물결이 거세졌다. 이것은 당연히 문 회장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의 계획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총재님에 대한 통제권을 더 강화하고 훈독회 관련 자료 보급을 전면 중단했다. 나중에 한 여사는 이미 인쇄되어 보급된 총재님의 말씀들을 수거하여 문 회장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나 자신과 교권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없도록 뜯어고쳤다.²⁰

때로 이 도당 세력들은 거짓된 보고를 하여 총재님의 승인을 강요했고,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기도 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어르신에 대한 학대이다. 수 년간, 총재님은 당신도 연세가 드시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같이 될 때”가 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해 오셨다. 그래서 총재님은 78 세가 되는 해에 문 회장을 후계자로 공인하고, 통일운동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으며, 수시로 통일가 전체에 당신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05 년부터 2012 년까지 문 회장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문 회장과 문 회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연로하신 문 총재님을 격리하고 고립시킴. 2) 법적으로 주요 단체들을 장악함. 3) 불법적인 후계체제를 지지하고 문 회장에 대해서 세계적인 인격살인 캠페인을 전개.²¹ 4) 문 회장과 그 지지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전개. 이러한 행위들은 통일운동에서 전례가 없었고 문 총재님과 문 회장의 원리적이고 경건한 리더십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고도로 조율된 작전은 문 총재님께서 가장 쇠약하신 기간인 생애 마지막 순간에 사악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문 회장이 입원중인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로막혔고, 2012 년 아버지의 성화식에 참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었다.²²²³²⁴ 문 회장과 그 직계가족의 이름은 성화공고문의 유족 명단에서 삭제되어 가장 큰 치욕을 안겨주었다.²⁵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공격은 하늘의 시각에서는 범죄이며 문 총재님이나 문 회장, 그리고 전체 통일운동에 대한 배신에 불과하다.

주요한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한 강탈

교권세력과 세 형제, 그리고 한 여사가 함께 도모하여 세 형제들을 통일운동 산하 주요 단체의 지도자 자리에 앉혔다. 취임한 그들은 문 총재님의 직계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식구들의 눈에는 그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비춰졌다. 단계적으로 이들은 통일운동 단체들의 자산에 대한 법적인 통제권까지 장악하기 시작했다.

문 총재님은 항상 문 회장을 전체 섭리기관들에 대해 영적인 감독을 맡은 후계자로 간주했다. 그의 감독권을 훼손하고 회피하기 위한 이들의 시도를 눈치채지 못한 총재님은 그럴듯해 보이는 이 인사조치들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한 여사는 이러한 요청의 주된 추진자였으며, 만약 그들이 원하는 특정 자리를 주지 않으면 형제들이 가정을 떠날 수도 있다는 위협까지 했다.²⁶ 가정의 평화를 위해 문 총재님은 마지못해 동의하면서도 문 회장이 계속해서 전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길 언제나 기대했다.

문국진은 한국의 통일그룹과 일본협회를 포함한 기업분야를 총괄했다. 사업가로서의 그의 기량은 식구들에게 크게 과장되었다.²⁷ 이 지위에서 그는 교권세력들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단체들의 자금 흐름을 통제하였으며, 타겟으로 삼은 조직들에 대한 재정 감사를 집행할 수 있었다.

문형진은 한국의 지역 교회에서 빠르게 승진하여 한국 “교회”의 국가책임자가 되었다. 언뜻 보기에, 그는 목사로서 탁월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였다. 그가 담임했던 한국의 작은 지역 교회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면밀히 보면, 협회 본부의 지시에 따라 주변의 교회들과 통합했고, 그 식구들은 먼 거리에 있는 문형진의 교회로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장 교회의 식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의 식구들은 이것이 문형진을 위대한 종교지도자로 포장하기 위한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사는 문형진을 가정연합의 세계회장으로, 이어서 천주평화연합의 의장으로 임명하도록 작업을 했다.

이들은 북미 통일운동의 “총회장”이라는 가공된 자리를 만들어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였지만 야망에 차있던 문인진을 불러와 앉혔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동료들로 미국 협회의 이사진을 교체해 버렸다. 나중에 문형진 회장이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이사진을 원위치 하려고 하자, 그들은 문 회장이 아버지에게 반항하여 이사진을 교체했다고 주장하면서 인사발령 건에 대하여 문 총재님에게 왜곡된 보고를 했다.²⁸

교권세력들은 이러한 핵심적인 지위들을 장악하면 문형진, 문국진, 문인진에게 문 회장을 저지하고, 일반 식구들을 통제하며, 필요하다면 때가 되었을 때 법적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연합적인 역량을 갖게 해 줄 것으로 착각했다. 2009 년, 문형진은 공식적으로 가정연합의 명칭을 이 운동의 반대자들이 지어 낸 “통일교”로 변경했다.²⁹ 이미 언급했듯이, 문형진과 교권세력은 교권의 전반적인 권력과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가톨릭 교회와 같은 체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통일교”가 통일운동의 완성기를 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의 평화운동 조직들을 우롱했다.³⁰ 이 모든 것들은 문 총재님께서 협회 창립 50 주년 기념식에서 분명하게 밝혔던 설명과 상충한다. 총재님께서서는 교회 시대는 끝났고 가정 중심의 시대,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계평화의 실현으로 확대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문형진의 계층적인 교회 모델에 대한 집착과 섭리 방향에 대한 무지는 그가 이끌고

있던 바로 그 단체(가정연합)의 성격과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대부분의 식구들은 문형진이 가정연합 세계본부와 “세계선교본부”를 통해 작성하고 발표한 인위적인 지침들을 의심 없이 모두 받아들였다.³¹ 이 기간, 한 여사와 교권세력은 식구들에게 교회 같은 계층화된 조직의 중심적 위치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책임으로 “절대복종”을 요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기적이고 거짓된 지시들을 알리기 위해 “참부모님”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본부직인이 없는 공문들을 내보냈다. 대부분의 식구들은 이 지시에 따른 것을 하늘의 뜻에 부합한 것으로 믿겠지만, 실제로는 문 총재님의 바램을 거역한 한 여사의 사적인 의도에 희생당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소송을 위해 법적 근거로 사용할 가짜 기록들까지 만들어냈다.

교권이 만들어 낸 저질의 문화는 식구들을 조종하는 데 매우 유용했고, 분열을 더욱 키웠다. 한 여사는 후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 총재님이나 자신은 문형진의 지시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문형진이 후계자인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³² 그러나 한 여사 자신이 문형진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일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연출해서 그가 진짜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까지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형진과 문국진은 그들이 벌인 행위를 놓고 볼 때, 가식적인 기회주의자이고 어떠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문형진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한 신격화에 앞장 섰고,³³ 교권세력이 원하는 교회중심체제를 지지하면서 양쪽 모두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³⁴ 이 두 행동은 모두 비원리적이며 통일운동의 섭리적인 방향과 전면 충돌된다. 후일, 문형진은 자리에서 쫓겨나자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한 여사와 교권세력을 사탄 마귀로 비난하고,³⁵ 스스로 “2 대 왕”이라 칭하면서 (“1 대 왕”도 한 번도 없었는데도), 자체의 “천일국합중국헌법”을 가진 “생츄어리교회”ⁱⁱ를 세웠다. 원리적인 근거가 없는 생츄어리교회는 명확하게 개인을

ⁱⁱ 세계평화통일성전교회(번역자 주)

송배하는 집단이다. 문국진도 어머니에 의해 모든 지도부 자리에서 제거되자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뒤집었다.³⁶ 보잘것 없는 생츠퍼리교회의 “헌법”은 그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생츠퍼리의 재정을 관장하도록 설정되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통일운동의 역사에서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다. 이 기간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혹한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이 기간이 문 총재님의 생애 마지막 3년이었다는 것을 알면 이 행위들의 성질은 분명 더 끔찍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법적인 지위가 확보되자마자 문형진, 문국진, 문인진은 각자 관장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 전 세계에서 문현진 회장에 대한 인격살인 캠페인을 조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며, 문 회장에 대해 자신을 제외시킨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질투심에 “통일교회”의 자산을 훔치고, 통일가를 저버린 아들로 묘사하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꾸며 문 회장을 비난했다. 문형진과 문국진은 이러한 공격을 한국 일본 및 기타 국가에서 주도했다. 문인진은 미국에서 비난 캠페인에 가세했고, 후에는 중남미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거짓말도 계속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레닌의 말은 문 회장에 대한 장황한 거짓말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녔던 때의 통일운동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그에 대한 이러한 비방 캠페인은 수 년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 사기성 이야기는 후일 그들이 제기한 많은 소송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내용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문형진과 문국진은 목사들과 젊은 지도자들이 비디오 앞에서 새로운 지도부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오웰식(Orwellian)ⁱⁱⁱ 공산주의 전술까지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 맹세를 거부하면 이어지는 결과는 해고당하고 “사탄”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³⁷ 최악의 죄인 조차도 중국에는 용서받고 구원받는 보편적 구원에 대한 원리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 운동에는 제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통일운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도당은 권력의 편에서 문 회장을 공격하는 데 발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하며 “제명” 정책을 공식화하고 이를 집행했다.³⁸³⁹⁴⁰⁴¹ 또한 처음으로 우리 운동의 가장 신성하고

ⁱⁱⁱ 전체주의 방식을 의미(번역자 주)

가장 가치있는 예식인 축복식이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되었다. 문 회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만 해도 그들과 그 자녀들은 축복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말이 식구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은 고령의 문 총재님께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악의적인 뜻을 관철하기 위한 선포문에 서명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악명 높은 새벽 4 시 "침실 영상"에서 드러나듯, 그런 비열한 행위는 무대 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⁴² 그들은 문 회장을 불법화하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박기 위한 진술서까지 문 총재님께서 작성하시도록 노쇠한 총재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 교권세력 도당들은 신성한 모든 것들을 범하고 배신했다. 문선명 총재님의 원칙과 가치와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한 새로운 이단 집단을 만들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신실한 식구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문 총재님과 문 회장은 신성한 이상과 타고난 기본권과 개인 책임을 옹호하는 섭리적인 운동을 구축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투입했다. 인간을 진리와 정의와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킴으로써 인류를 해방하고자 하는 고귀한 뜻을 위해 삶을 투입하고 희생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유린당하고 있다. 통일운동의 가장 핵심 기반들은 탈취당하여 한 여사를 새로운 신으로 숭배하는 낯선 "독생녀" 집단으로 변조되었다.⁴³

법정에서 벌어지는 전투

문 회장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교회 도당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소송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문 총재님과 문 회장의 리더십 아래에서는 세속적인 법원과 변호사를 통해 내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본에서부터 정도를 벗어난 그들은 소송을 무기화하는데 아무런 도덕적 가책이 없었다. 그 결과, 그들의 지배 하에서 소송이 일반화되었다. 통일운동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이런 수준의 공격과 유린을 본 적이 없다. 통일운동에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지 않았는데, 총재님의 아들이자 후계자에게는 더욱 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2009 년부터 교권세력들은 문 회장과 그 지지자들을 상대로 3 개 대륙에서 30 개 이상의 소송을 일으켰다. 이 소송들은 명분도 근거도 없기 때문에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되거나 문 회장에게 유리하게 판결되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 남아있는 한 건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그 외 대 문현진과 그 외”의 소송이고, 전 세계 종교 자유의 표상이 되어 왔던 미국의 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건은 워싱턴타임즈의 모(母)기관이었으며, 이사회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인 UCI 가 포함된 소송이다. 원고측은 문형진(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 문국진(일본협회), 그리고 두 명의 교권세력(김효율, 주동문)이다.

대부분의 통일가 식구들은 UCI 가 통일운동에서 가장 우량한 기관이라고 잘 못 알고 있었다. 그러나 UCI 는 실제 교권세력들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실, 문 총재님은 여러 해에 걸쳐 문 회장에게 사면초가에 빠진 이 조직을 책임 맡아 살려낼 것을 부탁했다. 결국, 문 회장이 UCI 이사장에 취임하였지만, 그 전까지 UCI 에서는 30 년 간 핵심 교권 세력인 박보희와 주동문의 휘하에서 무려 30 억 달러 (3.5 조원)가 넘는 자금이 잘못 관리되어 왔다. 문 회장이 2006 년 UCI 의 핸들을 잡았을 때, 매년 평균 1 억 달러의 출혈을 보고 있는 조직을 물려받았던 것이다.⁴⁴

이런데도 교권 세력들은 보조금에 의존하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UCI 에 대한 문 회장의 이사장 역할을 비방함으로써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려 했다. 2009 년, 문국진은 UCI 를 파산시킬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던 일본협회의 UCI 보조금을 모두 중단시켰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혁신적인 리더십과 창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문 회장은 이 조직을 붕괴 직전에서 호전시킨 것이다.⁴⁵

2011 년, 교권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소송에 매달렸다. UCI 에 대해 주장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원의 명령을 통한 적대적 인수를 위해 문

회장과 UCI 이사회를 고소했다. 소장을 제출할 당시, 그들은 문형진이 가정연합 및 천주평화연합의 회장으로 갖는 조직 내의 위상이 포괄적인 권위와 문 총재님의 “후계자”를 의미한다는 허구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작했다.⁴⁶ 그런데 어이없게도, 한 여사와 원고들은 이 소송의 증언에서 문형진이 후계자였다는 것을 부인했고, 심지어 그가 원리에 대해 중학생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⁴⁷ “UCI 소송”은 현재 수 억 달러가 낭비된 가운데 9년째를 맞이했다.

UCI 소송이 접수된 직후, 교회 도당들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 가장 먼저 문인진이 혼외정사로 인해 북미 통일운동의 “총회장” 자리에서 제거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 여사는 2012년 문 총재님의 성화 이후 더 이상 필요 없는 문형진과 문국진을 이임식도 없이 쫓아냈다. 그들은 그 후로 돌변하여 한 여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종교적인 생존을 위해 만든 분파인 “생츠퍼리교회”를 이용해 그녀를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다.⁴⁸ 심지어 지금은 그녀를 고소하고 있다.⁴⁹ 한편, 한 여사는 가정연합을 독생녀 집단으로 변형시키고 그녀 자신에 대한 신격화를 도모하고 있다.⁵⁰⁵¹

지금 우리가 설 자리

UCI 소송은 본래 아니타 호세 헤링 판사에 의해 국가의 종교 불개입 원칙을 근거로 2013년에 기각되었다. 헤링 판사는 이것이 영적인 권위와 정책을 다루는 종교적인 분쟁이라고 올바르게 판단했다.⁵² 그러나 항소에서 이 건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이 소송은 수도 워싱턴의 납세자들과 통일운동의 식구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케 하면서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 소송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판결은 2018년 로라 코데로 판사가 결정한 요약 판결에서 나왔다. 이 요약 판결의 문제는, 이 소송의 복잡성과 수정헌법 제 1 조의 정신을 무시한 채, 재판에 적합하게 맡겨져야 할 문제를 (배정판사가 미리)

결정해 버린 것에 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사법부의 명령이나 다른 없는 판결을 통해 한창 분쟁에 휘말린 통일운동의 후계자 문제, 신학적인 문제, 정체성과 방향에 관한 문제 등을 결정해 버린 것이다.⁵³

승계에 대한 종교적인 논쟁을 다룬 주요 증거물들이 압도적으로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원고측의 거짓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종교적인 리더십에 대해 결정을 내려버렸다. UCI 가 수정한 종교적인 개념의 정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학적인 판단과 결정까지 내렸다. (법원은 종교적인 개념을 해석하거나 규정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은 우리 운동에 "총괄적인 권위"라는 것이 있다는 가정연합의 잘못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통일운동의 조직 구조에 대한 판단까지 결정해버린 것이다. 이런 모든 "결정들"은 미합중국의 수정헌법 제 1 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코데로 판사의 잘못된 결정은 전체 통일운동과 미국의 다른 모든 종교 단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종교적 분쟁을 겪는 동안, 교권세력, 그리고 한 여사와 형제들의 파렴치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문 회장은 그들이 지난 일에 잘못을 깨닫고 참가정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기를 바라며 침묵을 지켰다. 문 회장은 수 차례 서신을 보내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으며, 한 여사에게 문 총재님 및 문 회장과 하나되어 참 "해와" 그리고 "참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간청했다. 그러나 한 여사와 교권세력들은 문 회장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을 뿐이며, 심지어는 소송에서 문 회장의 서신을 이용해 그를 "여성혐오자"로 몰아 그의 인격을 모독했다. (그런 이유라면, 예수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여성혐오자"들이다!)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한 여사의 비원리적인 행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문 총재님의 업적에 희생이 따르고 문 회장의 중대한 섭리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를 놓고 문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회장은 언제나 문 총재님의 가르침과 레거시, 통일운동의 사명에 충실했다. 사실, 그는 1998 년 취임 이래 참된 통일운동을 꾸준히 이끌어온 분이다. 어머니가 이끄는 교권세력의 전면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회장은 세계적으로 섭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상당한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조국인 한국 통일의 중대한 사명을

놓고, 문 회장은 문 총재님께서 수 십 년 전에 시작한 활동들을 계승하여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고, 한국인들의 오랜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지도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의 선구적인 저서 “코리안 드림”은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통일을 지원해야 하는 다른 중요 국가에서도 국가 지도자들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의 리더십은 풀뿌리 운동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을 출범시켰고, 이것은 분단된 한국의 역사에서 통일을 위한 가장 큰 시민연대로 발전하고 있다.⁵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연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통일천사는 현재 남북한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의 동포사회를 아우르는 수 백만 명의 한국인에게 영향을 주고 원칙과 비전이 담보된 이 통일운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나는 46 년 넘게 통일운동의 식구였으며 총재님의 가족들 모두를 잘 알고 있다. 나는 12 년이 넘는 분열로 지쳐있고 이 상황을 큰 비극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의 식구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느낀다. 나는 신실한 참 사람, 문 현진 회장에 대한 거짓과 비방을 현장에서 내 눈으로 목격했고 내 귀로 들었다. 문 총재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분의 아내가 세속적인 소송에 의지해서 아들을 정복하려 하고, 기름부음을 받은 아들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곤혹스런 일이다.

나는 코데로 판사의 판결에 대단히 실망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종교적인 분쟁과 분열에 대한 방대한 증거를 무시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 1 조를 팽개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신앙 공동체와 신앙인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됐다. 코데로 판사는 피고가 신흥 종교가 아니라 기성 종교의 성도였더라도 요약 판결문을 그토록 성급하게 작성하고 피고에 대한 처벌을 결정했겠는가? 그녀의 판결문은 모든 신앙 공동체의 신실한 믿음과 신념을 팽개쳐버렸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박탈할 수 없다. 워싱턴 디시 법원은 이 점에서 심각하게 잘못됐다. 법원은 종교 분쟁에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이다.

현재 UCI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니퍼 앤더슨 판사는 아직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녀는 수정헌법 제 1 조를 근거로 본 건을 기각할 수 있다.

그것은 종교의 교리와 정책의 문제인 것이 분명하면 소송을 기각하라는 워싱턴 디시 항소 법원의 지침과 일치한다.⁵⁵

UCI 건은 워싱턴 디시와 그 외 지역의 종교 단체, 종교 자유 옹호자, 그리고 비영리 단체에 대한 사법권의 과잉 간섭을 경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식구들과 나는 앤더슨 판사가 그녀의 양심에 따라 판사로서 헌법을 수호기로 한 맹세를 지키고 본 건을 기각할 것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결론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통일운동의 분열은 커다란 비극이며, 단결을 훼손하고, 식구들의 시간과 노력을 소진하고, 귀중한 재원을 비양심적으로 탕진해 버렸다. 2008 년까지 달성되었던 세계적인 평화의 추진력도 상실되었다. 가장 큰 비극은 하나의 지구촌 가족이 되어 얻게 되는 사랑과 신뢰의 경험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재하시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려면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진리로 무장하여, 본연의 길로 돌아가는 교정의 길을 설계하고, 하늘이 주신 우리의 목적지로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글에는 대다수 통일가 식구들이 전혀 몰랐던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각자가 담당했던 역할에 관계없이 이 글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실을 알수록 고통스럽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를 분열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하워드 셀프 (Howard C. Self)

-
- ¹ [Book by Sun Myung Moon, *As a Peace-loving Global Citizen*, Gimm-Young Publishers, 2009, pp.121-125](#)
 - ² [Publication by Massimo Introvigne, *From the Unification Church to the Unification Movement, 1994-1999: Five Years of Dramatic Changes*, Signature Books, 1999](#)
 - ³ [Book by Sun Myung Moon, *As a Peace-loving Global Citizen*, Gimm-Young Publishers, 2009, pp.121-125](#)
 - ⁴ [Report from Hyun Jin Moon to True Parents, "Report to Parents", March 23, 2008](#)
 - ⁵ [Speech by Sun Myung Moon published in *Today's World Magazine* \(July 1998 Issue, Vol. 19, No. 7\), "Vice Presidential Inauguration of Mr. Hyun Jin Moon", July 19, 1998, pp.4-7](#)
 - ⁶ [Notes from a leaders meeting held at New Yorker Hotel Grand Ballroom, USA, "Leaders Meeting", January 30, 2001](#)
 - ⁷ [Book by Hyun Jin Moon, *Realizing God's Dream*, 2011, p.97](#)
 - ⁸ [Book by Chung Hwan Kwak, *Truth Shall Prevail: Understanding the Conflict within the Unification Movement and its Resolution*, Aju Media, 2019, pp.151-152](#)
 - ⁹ [Speech by Sun Myung Moon published in *Today's World Magazine* \(April/May 2004 Issue, Vol. 25, No. 3\), "Fifty Years of the Providential Path to the Realization of God's Fatherland the Peace Kingdom", April 30, 2004, pp.4-7](#)
 - ¹⁰ [Unification News \(Vol. 26, No. 3\), "Hyun Jin Nim Proclaims Message of Peace: 12 City USA Speaking Tour", March 2007](#)
 - ¹¹ [Compilation of speeches from the Global Peace Festival 2008 World Tour, *One Family Under God*, Global Peace Festival Foundation, 2009](#)
 - ¹² [Presentation given by Joshua Cotter, "The Current Situation: Chung Hwan Kwak and Hyun Jin Nim's Positions in Light of the Principle", 2010](#)
 - ¹³ [Public letter by Kiyoshi Seino, "Letter to the Leadership of the Unification Church in Japan about Hyun Jin Moon", June 21, 2012](#)
 - ¹⁴ [Speech by Hak Ja Han, "A Time to Be United, Inside and Out", Cheon Jung Gung, Chung Pyung, Korea, July 1, 2014](#)
 - ¹⁵ [Speech by Hyung Jin Moon, "The Beginning of the third year of Cheon-gi", National Leaders World Assembly, Korea, January 21, 2012](#)
 - ¹⁶ [Article by Yeon-ah Lee published in *Today's World Magazine* \(June 2011 Issue, Vol. 32, No. 5\), "Mother of Heaven and Earth: My Mother", pp.12-15](#)
 - ¹⁷ [YouTube video of Sun Myung Moon's speech, "The Abel Women UN Inauguration Assembly", Cheongshim Peace World Center, Korea, July 16, 2012](#)
 - ¹⁸ [Public letter by Hyung Jin Moon and Yeon-ah Lee Moon, "Letter to Unification Church USA", February 24, 2013](#)
 - ¹⁹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 Official Memo \(Ref. No. FFWPUI 2014-12\), "Cheon Il Guk Constitution and Cheon Il Guk Supreme Council", February 28, 2014](#)
 - ²⁰ [Book by Jongsuk Kim, *Split of the Unification Movement*, Aunae Publishers, 2017, pp.233-247](#)

-
- ²¹ [Vimeo video of Joshua Cotter's lecture in Chicago, IL, USA, "The Current Situation: Chung Hwan Kwak and Hyun Jin Nim's Positions in Light of the Principle", November 4, 2010](#)
- ²² [Article in United Press International, "Moon Wake Shows Family Tension", September 11, 2012](#)
- ²³ [Public letter by Kyung Hyo Kim, "Nobody Can Interrupt Hyun Jin Moon's Visit to True Father's Seong Hwa", September 10, 2012](#)
- ²⁴ [Photo of a human blockade formed to keep Hyun Jin Moon from participating in his father's funeral, September 12, 2012](#)
- ²⁵ [Publicly available account of Rev. Dr. Sun Myung Moon's Universal Seonghwa Ceremony held on September 15, 2012. The page includes the list of bereaved family members. Hyun Jin Moon's entire family had been omitted.](#)
- ²⁶ [Book by Chung Hwan Kwak, *Truth Shall Prevail: Understanding the Conflict within the Unification Movement and its Resolution*, Aju Media, 2019, pp.177-179](#)
- ²⁷ ["Hyung Jin Moon, Kook Jin Moon, and In Jin Moon Sharing with Leaders at the World National Leaders Assembly", February 19, 2010](#)
- ²⁸ [Powerpoint released by Blessed Central Families for Truth and Transparency, "Facts Behind the Change of Leaders of the Unificatio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nd Hyun Jin Moon's Removal from his Public Positions", 2010](#)
- ²⁹ [Unification Church World Mission Headquarters, Official Memo \(Ref. No. WMH 2013-17\), "Renaming the Unification Church World Mission Headquarters and Guidelines for Using the Emblem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January 18, 2013](#)
- ³⁰ [Transcript of Hyung Jin Moon's speech in Washington, D.C., USA during a 4-City tour, September 4, 2009](#)
- ³¹ [Testimony by Hyung Jin Moon published in *Today's World Magazine* \(September 2011 Issue, Vol. 32, No. 6\), "Learning at Father's Side", p.2 and p.23](#)
- ³²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Moon v. Moon et al", Case No. 7:2019cv01705, February 22, 2019](#)
- ³³ [Speech by Hyung Jin Moon at the National Leaders World Assembly in Korea, "The Beginning of the Third Year of Cheon-gi", January 21, 2012](#)
- ³⁴ [Article by Yeon-ah Lee published in *Today's World Magazine* \(June 2011 Issue, Vol. 32, No. 5\), "Mother of Heaven and Earth: My Mother", pp.12-15](#)
- ³⁵ [YouTube video of a Question & Answer Session with Hyung Jin Moon & Kook Jin Moon on October 31, 2016](#)
- ³⁶ [Article by Hong Keun Song for *Shin Dong-A Magazine* \(May 2013 Issue\), "Crisis in the Unification Church after Rev. Moon's Death"](#)
- ³⁷ [YouTube video of Man-Hwe Jeong's testimony, "I Was Assaulted for Defending My Own Principles", August 18, 2020](#)
- ³⁸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 Official Memo (Ref. No. FFWPUI 2010-20), "Announcement of Dismissal of Regional Vice-President in South America Region", June 3, 2010

-
- ³⁹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 Official Memo (Ref. No. FFWPUI 2009-57), “Announcement of Changes of National Leaders in Africa Region”, December 28, 2009
- ⁴⁰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 Official Memo (Ref. No. FFWPUI 2010-02), “Announcement of Appointment of National Leader in Philippines, Asia Region”, January 7, 2010
- ⁴¹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 Official Memo \(Ref. No. FFWPUI 2009-53\), “Announcement of Personnel Change of YFWP International President”, December 2, 2009](#)
- ⁴² [Vimeo video of June 5, 2010 Proclamation with English Subtitles](#)
- ⁴³ [Vimeo video entitled “Hak Ja Han’s Deceptive Events Targeting Christians”, October 26, 2018](#)
- ⁴⁴ [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Defendant UCI’s Answer, Affirmative Defenses, and Counterclaim of Defendant Hyun Jin \(Preston\) Moon”, Case No. 2011 CA 003721 B, August 24, 2012](#)
- ⁴⁵ [Public statement of facts issued by UCI regarding the situation of *The Washington Times*, July 16, 2010](#)
- ⁴⁶ [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ternational, et al v. Hyun Jin Moon et al”, Case No. 2011 CA 003721 B, May 11, 2011](#)
- ⁴⁷ [YouTube video of Hak Ja Han’s deposition held on July 13, 2018, “Hak Ja Han Deposition Day 1 Part 3”](#)
- ⁴⁸ [YouTube video of a sermon by Hyung Jin Moon at Sanctuary Church in Newfoundland, Pennsylvania, “The Mystery of Babylon”, September 13, 2015](#)
- ⁴⁹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Moon v. Moon et al”, Case No. 7:2019cv01705, February 22, 2019](#)
- ⁵⁰ [Vimeo video of the unveiling ceremony of new structures and sculptures in Chung Pyung, Korea on September 28, 2020.](#)
- ⁵¹ [Image of one sculpture recently erected in Chung Pyung, Korea, September 28, 2020](#)
- ⁵² 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emorandum Opinion”, Case No. 2011 CA 003721 B, December 19, 2013
- ⁵³ 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Defendant’s Finding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Case No. 2011 CA 003721 B, November 25, 2019
- ⁵⁴ [Website report of a Yonhap News YSpecial Program with Hyun Jin Moon, “Dr. Hyun Jin P. Moon Describes a Vision for a Unified Korea in Yonhap News Interview”, August 2019](#)
- ⁵⁵ 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Defendant’s Finding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Case No. 2011 CA 003721 B, November 25, 2019